

'문화재 소설' 나온다

성낙주 씨 성보에 얽힌 이야기 '불교와 문화'에 단편형식 연재

우리 문화의 보고인 불교 문화재에 이야기의 옷을 입혀 현대적으로 되살려낸 문화재 소설이 선보인다.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설가 성낙주 씨가 불교 문화재를 소재로 새로운 글 쓰기를 시도했다.

성씨의 문화재 소설은 원고지 50매 분량의 짧은 이야기다. 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세심한 관찰력, 거기에 동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서사방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가볍게 읽을 수



성낙주 씨

있으면서도, 성보에 깃든 심미적 역사적 의미와 부처님 가르침까지 담아냈다는 것 또한 이 문화재 소설의 장점이다. 이같은 시도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불교문학계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풍부한 불교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창작인들의 게으름과 인식부족으로 그 유산들을 오늘의 언어로 살려내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성씨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재창조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편 형식으로 이어지는 문화재 소설은 격월간 <불교와 문화>를 통해 연재되는데, 이번 3·4월호에서 '석굴암 아난존자편-미타의 사랑'으로 첫선을 보였다.

'미타의 사랑'은 사랑과 결혼하길 원하는 생쥐 미타의 이야기다. 인간이 아닌 생쥐를 주인공으로 삼아 석굴암 부처님과 나한, 관세음보살까지

우화적 시각으로 접근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야기 속에서 미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석굴암 아난존자는 '살짝 옆으로 돌린 말끔한 이마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고요한 눈길에 부드러운 훗날-남자의 아름다움이란 순간 아름다움이 모두 그 한 사내한테 모여있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석굴암 아난존자에서 발견한 후 그의 결혼하기 위해 석굴암 부처님께 100일간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미타. 마침내 100일이 되면 날 석굴암 벽에서 뛰쳐나와 인간의 생명을 얻은 아난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과 결혼하자, 질투와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둘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하지만 그 여인이 바로 미타 자신의 다른 모습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그 여인은 너의 편 몸이었는지, 어리석어라. 너의 사생이 네 자신을 버렸구나." 석굴암 부처님을 향해 수백 수천 번의 절을 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미타는 그 후 다시는 석굴암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대략의 줄거리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문화재를 읽고자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들의 현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울림도 크다. 이야기와 함께 화가 하경숙씨의 삽화도 곁들여, 보는 즐거움도 더했다.

성씨는 앞으로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예림대종, 이차돈 순교비, 서산 마애삼존불, 범주사 쌍사자석등 등을 소재로, 우리시대의 새로운 설화를 엮어낼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산 너머 해가 진다. 붉은 석양빛에 앞산의 나무들이 황금색으로 물들고 거대한 땅거미가 길게 깔리더니, 이윽고 서방에 어둠이 찾아온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치 딱 남은 붉은 빛이 거의 사라져갈 무렵, 마침내 서쪽 하늘 위에 초롱초롱한 금성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문득 정진규의 시집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에 있는 시 '별'이 생각났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별들을 낚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이다.

정진규의 별 대낮에도 별들은 빛나고 있지만 햇빛에 가려있다

하늘 위에서 저렇게 찬란히 빛나고 있는 저 별은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대낮에도 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지만, 단지 그보다 더 밝은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태양도 하나의 작은 항성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해가 저 지면에 있어야 비로소 온갖 별들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햇빛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동몽이(해)를 잘 쓰기로 이름난 덕산선사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교종 계열의 금강경 학자였던 젊은 덕산은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종의 무리들을 소탕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선 지식으로 이름이 높았던 용담선사를 찾아간다. 덕산은 용담을 만나 한바탕 금강경을 설교하였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묵묵히 듣고만 있던 용담은 그만 돌아가 쉬라고 하며 촛불 하나를 켜서 건네주었다. 덕산이 촛불을 들고 방문을 나설 때, 용담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돌아서는 덕산의 손에 쥐어진 촛불을 훑 불어 끄고는, 방문을 탁 열어버렸다. 촛불의 빛에 의존하던 덕산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참을 멍하니 서있는 덕산이 정신을 차리자, 비로소 하늘의 별빛이 보이며 길도 어렵듯이 드러났다. 그 순간 덕산은 깨침을 얻었다.

촛불을 꺼야 별빛이 보인다. 눈앞의 촛불 하나 때문에 태양도 우주의 촛불이다. 저 먼 곳에서 보내오는 진리의 메시지를 놓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다. 덕산은 하늘처럼 밝았던 경전을 보짐에서 꺼내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대자유인이 되었다.

많은 선방의 입구에는 이런 경구가 걸려있다. '알음알이를 내는 사람은 이 문에 들어서지 마시오(此門內 莫存知慧)'. 진리의 빛산인 비로자나불이 계신 곳을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 한다. 양광(陽光)보다 작광(寂光)이 참된 빛이다. 번뇌의 불이 꺼질 때, 비로소 열반적정의 빛이 드러난다.

■문학평론가

“'신돈=개혁가'에 맞췄죠”

'파몽기' 무대 올리는 극작가 신봉승 씨



신봉승 씨

1983년~90년까지 방영된 MBC TV 역사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을 비롯해, 역사적 사실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해온 극작가 신봉승씨가 고려말 공민왕과 승려 신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시도한 희곡 '파몽기'를 무대에 올린다.

"파몽기"는 내 나이 70에 쓴 희곡 데뷔작입니다. 사실 공민왕과 신돈의 이야기는 15년 전부터 구상해왔는데, 지난해서야 원고를 맡고 싶었죠. 희곡에 대한 애정심이랄까,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신씨는 '파몽기'가 정통사극 형식을 빌려 극화되지만, 실제로 '파몽기'의 역사적 배경은 픽션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동안 나약한 임금으로서의 공민왕과 요승으로 인식되어온 신돈이 아니라, 고려 중흥에 대한 열망과 급진적 개혁정책을 시도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두 사람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패한 고려말에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고려 흥구세력이 개혁의 주체였던 신돈을 크게 견제했고, 그에 대한 원한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30년간 9번이나 들여다보면, 신돈과 공민왕, 우왕 등에 대한 왜곡이 가해

졌지요. 그러다보니 그동안 신돈과 공민왕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신돈의 문제는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신씨는 그동안 한국 연극에서 정통 사극과 같은 고전극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에 이번 '파몽기'를 준비하며 <고려사>를 다시한번 꼼꼼히 공부하고, 검토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방진사태 경사"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우리 전통 고전 희극이라면, 내가 만든 '파몽기'는 비극으로서 가장 사랑받는 한국적 레파토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신씨는 1970년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경산스님으로부터 법련(法蓮)이라는 별명을 받고, 요즘도 <법구경>을 애송하는 불자다.

신씨의 희곡 '공민왕 비사-파몽기(破蒙記)'는 조선왕조 5백년에서 호흡을 맞췄던 표재순 씨의 연출로 오는 23일~4월 1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된다. 02-2274-3507

이은자 기자

전시소식

동국미술인회 회원전

동국불교미술인회 제5회 정기회원전이 21일~27일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 개성을 그대로 살리는 자유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한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동국불교미술인회 심용식 회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불교미술의 맥을 이어가려는 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3-9512



티벳사자의 서

'탕카의 예술' 日 순회전

한빛문화재단은 <탕카의 예술(Art of Tangka)> 제3권 출간을 기념해 티베트 불교회화의 정수만을 모은 '탕카의 세계-티베트 불교미술전' 일본순회전시를 갖는다. 17일~5월 6일 도쿄 고대오리엔트박물관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만다라, 축상, 여래, 불모, 나한 등 티베트 토착의 다양한 불교미술 장르를 보여 줄 예정이다.

중앙승가대 선서화전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법당 삼천불 봉안불사를 위한 '고승대 및 중진작가 선서화전'이 28일~4월 3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무형문화재 석정스님을 비롯, 근현대 한국 회단을 대표했던 이당 김은호, 석전 황욱, 청전 이상범, 천경자 화백 등의 작품 250점이 선보인다. 02-922-7881



전통채색 광동화작

연꽃세상

새 천년 연꽃 등

습가에 강한 등 · 꾸밈이 없는 등 · 변색되지 않는 등

의장등록: 제0249763호 / 특허출원: 0050262

※ 지질이 등도 있습니다.



▶대등 (지름) 33cm / (꽃이) 21cm 수술길이 : 15cm ▶중등 (지름) 30cm / (꽃이) 18cm 수술길이 : 11cm ▶소등 (지름) 27cm / (꽃이) 5cm 수술길이 : 11cm



양면 장엄 (가로 1m×높이 50cm)

양면 장엄 (가로 180cm×높이 90cm)

상단 장엄 (중2m : 도자기 높이 70cm×연꽃 1m30cm)

연잎지름 33cm

연잎지름 50cm

위패 장엄

한국불교 꽃 예술에 20여년간 발전시키면서 법당과 실내에 장엄이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색상과 우아한 모습의 연꽃등을 기획·제작하신 정명스님.



문의전화
☎ 02) 388-0108
☎ 02) 354-0108

농민은행 100124-56-027934
국민은행 024-01-0585-787
예금주 연꽃세상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다

등 간격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자전구(순정품)
- ▶ 종류 : 3W, 5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라엔트가 6배(특 할라엔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 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 (031) 986-0277~8